

충남리포트 제229호

# ChungNam Report

2016. 7. 7.

##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epark@cni.re.kr](mailto:kepark@cni.re.kr)

본 글은 충남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체험농장 등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농어촌체험과 도농교류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요 약

-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농어촌체험에 관한 교육, 문화, 환경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증대
  - 현재 충남도내 홍성군, 청양군, 아산시 등 각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 도농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특히 최근 들어 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 체험농장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연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의 77.5%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
  - 농어촌체험마을 담당자가 운영상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으로 나타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는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 역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 둘째, 하나의 고정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보다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 셋째, 중간지원조직이 단순 지원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
  -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우수 인력과 재정 확보

### CONTENTS

#### 〈요 약〉

1.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2. 충청남도 도농교류 현황
3.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례 및 의견조사
4. 정책 제언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 01

- 농촌과 도시는 대립과 경쟁의 공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공간으로 재인식됨에 따라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도농교류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관련법(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했고 충청도에서도 이에 관한 조례(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를 제정해 농어촌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1사1촌, 농어촌응원,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 농촌재능기부 등 사회운동 차원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농어촌은 건강과 휴양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정부 정책도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개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인성학교, 교육농장 등 건강과 휴양, 교육과 문화, 생태환경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농어촌체험 활동이 최근에는 농어촌지역을 벗어나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충청도의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고향마실페스티벌>이 대표적임
- 이처럼 도농교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농어촌체험을 실시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도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 차원의 과도한 지원으로 우후죽순처럼 증가한 농촌체험마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현재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도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임

- 특히 최근 들어 테마파크, 놀이공원, 캠핑장 등 외부 체험관광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도내 각 지자체에서 도농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현황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시·군 단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1. 충남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에 따르면, 충남의 2015년 말 기준 농어촌체험마을은 171개로 2013년 대비 84개(33.0%)가 감소했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12.9%에서 13.6%로 다소 상승
  - 2015년 현재 전국 농어촌체험마을은 1,259개로 전년 대비 713개 감소함. 이는 불과 2년 만에 36.2% 감소한 것임

[표 1] 전국 대비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단위: 개, %)

구성 유형		전국 마을 수		충남도 마을 수		충남도/전국(%)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588	457	80	63	13.6	13.8
	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	208	150	38	23	18.3	15.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111	34	10	6	9.0	17.6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21	12	2	3	9.5	25.0
	정보화마을	258	124	27	16	10.5	12.9
환경부	자연생태마을	45	47	2	3	4.4	6.4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172	115	36	25	20.9	21.7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313	107	31	14	9.9	13.1
	숲가꾸기마을	16	14	1	1	6.3	7.1
시·군지정	기타(시·군)	85	79	8	3	9.4	3.8
	기타(시·도)	155	120	20	14	12.9	11.7
계		1,972	1,259	255	171	12.9	13.6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www.ru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3. 10/ 2015. 11).

- 2015년 말 기준 충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7개로 전국 대비 14.1%임. 이는 강원도와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농어촌체험마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15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901개에 달함
  - 그 중, 충남도는 127개 14.1%로, 강원도 167개로 18.5%, 전남 129개로 14.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15)

(단위: 개, %)

지역	마을 수(%)	지역	마을 수(%)
인천	5(0.6)	충남	127(14.1)
대전	5(0.6)	전북	94(10.4)
울산	6(0.7)	전남	129(14.3)
세종	4(0.4)	경북	95(10.5)
경기	96(10.7)	경남	102(11.3)
강원	167(18.5)	제주	13(1.4)
충북	58(6.4)	총계	90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www.rucos.com](http://www.rucos.com)) 통계자료(2015. 11).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 최근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농어촌체험 방문은 다소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큰 감소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RUCOS에 등록된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를 보면, 2013년에는 83개 마을에 1,002,985명이 방문해 마을당 평균 12,084명에 달함. 2014년에는 전체 99개 마을전체에 1,091,402명이 방문해 마을당 평균 11,024명이었음
  - 2015년 10월 기준으로 체험객의 방문 목적별로 보면, 전체 891,696명 가운데 휴양·체험이 514,229명으로 57.7%를 차지했고, 단순 방문객으로 30.5%, 1사1촌이 8.4%, 교육·연구가 3.4% 등임

[표 3]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별 방문 인원

(단위: 개, 명)

년도(등록마을 수)	방문 목적별 방문인원(명)				
	합계	휴양/체험	교육/연수	1사1촌	단순방문객
2013(83개)	1,002,985	597,267	48,958	99,277	257,483
2014(99개)	1,091,402	552,231	32,584	88,996	417,591
2015(106개)	891,696	514,229	30,278	75,255	271,934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주: 2015년 수치는 10월까지 RUCOS에 등록된 수치임.(이하 동일)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류 목적별 방문 인원은 당일 방문이 가장 많음

- 2014년 기준 전체 방문 인원 1,091,402명 가운데 당일 방문이 481,685명으로 전체의 44.1% 차지
- 다음으로 단순방문객이 417,591명으로 38.3%, 숙박은 121,784명으로 11.2%, 마지막으로 기타 70,342명으로 6.4% 차지

[표 4]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류 목적별 방문 인원

(단위: 개, 명)

년도(등록마을 수)	체류 유형별 방문인원(명)				
	합계	당일	숙박	단순방문객	기타
2013(83개)	1,002,985	559,067	128,771	257,483	57,664
2014(99개)	1,091,402	481,685	121,784	417,591	70,342
2015(106개)	891,696	475,479	90,666	271,934	53,617

● 2014년 RUCOS에 등록된 99개 마을의 전체 매출액은 90억8천만 원이고, 이를 마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9,200만 원임

- 수입 유형별 매출액을 보면, 체험이 약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산물판매가 약18억6천만 원, 음식이 약12억2천만 원, 숙박이 10억7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보다 2014년 평균 매출액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험 수익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입 유형별 매출액

년도 (등록마을 수)	매출액(백만 원)							
	합계	체험	숙박	음식	농산물 판매	시설임대	주민개별 판매	기타
2013(83개) (마을당 평균)	8,160 (98.3)	3,018 (36.4)	971 (11.7)	1,928 (23.2)	1,669 (20.1)	134 (1.6)	25 (0.3)	414 (5.0)
2014(99개) (마을당 평균)	9,083 (91.7)	4,107 (41.5)	1,072 (10.8)	1,220 (12.3)	1,859 (18.8)	128 (1.3)	18 (0.2)	678 (6.8)
2015(106) (마을당 평균)	7,635 (72.0)	3,420 (32.3)	809 (7.6)	1,153 (10.9)	1,691 (16.0)	80 (0.8)	9 (0.1)	477 (4.5)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com](http://www.ru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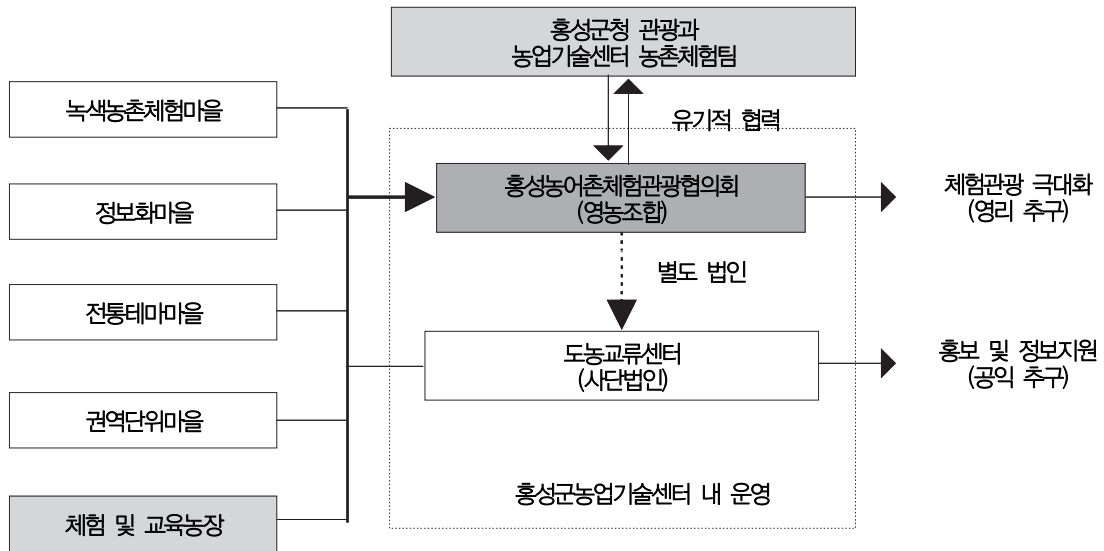
주: 2015년 수치는 10월까지 RUCOS에 등록된 수치임.



### 1. 각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례

#### 1) 홍성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와 도농교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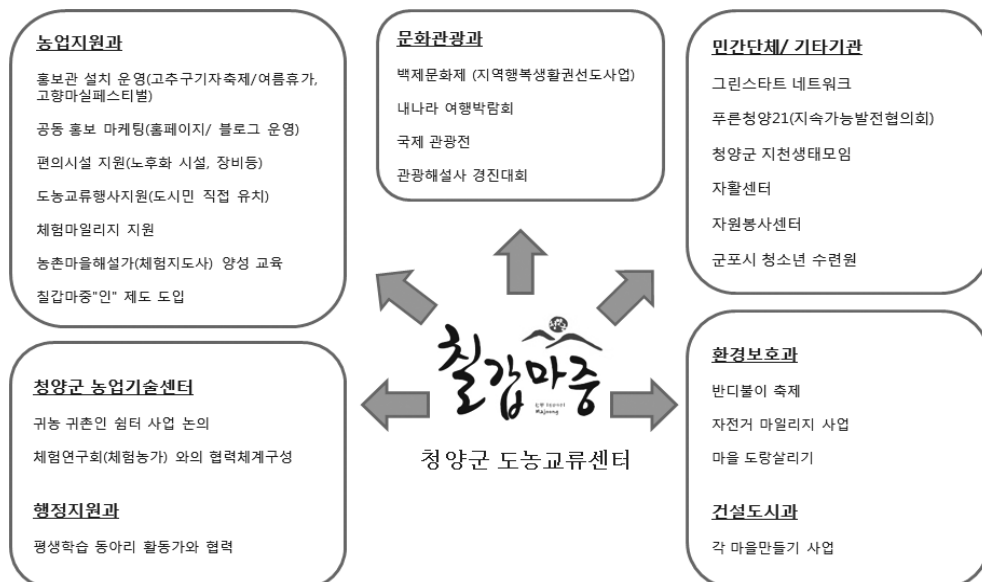
- 홍성농촌체험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지역 내 마을, 농가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해 방문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임
  - 협의회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농어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담당 전문 조직을 설치해 협의회에 사무실 및 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현재 협의회와 도농교류센터에는 거북이마을, 하누리마을 등 11개 체험마을, 은퇴농장, 한결농장 등 22개 체험농장, 그리고 논학교발학교, 농부이반의 농장 등 2개 교육농장 등 모두 35곳이 참여함



[그림 1] 홍성군 농어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도(2015. 10)

## 2) 청양군 도농교류센터(일명 칠갑마중)

-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는 2014년 지역 내 1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마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청양군청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현재 충남도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2]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칠갑마중」의 연계 현황

자료: 박준홍(2015). 명품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청양군 사례. 발표 자료

## 2. 의견 조사

### 1) 인터뷰조사 개요

- 도농교류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의견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충남도내 59개 마을 대표(위원장 또는 마을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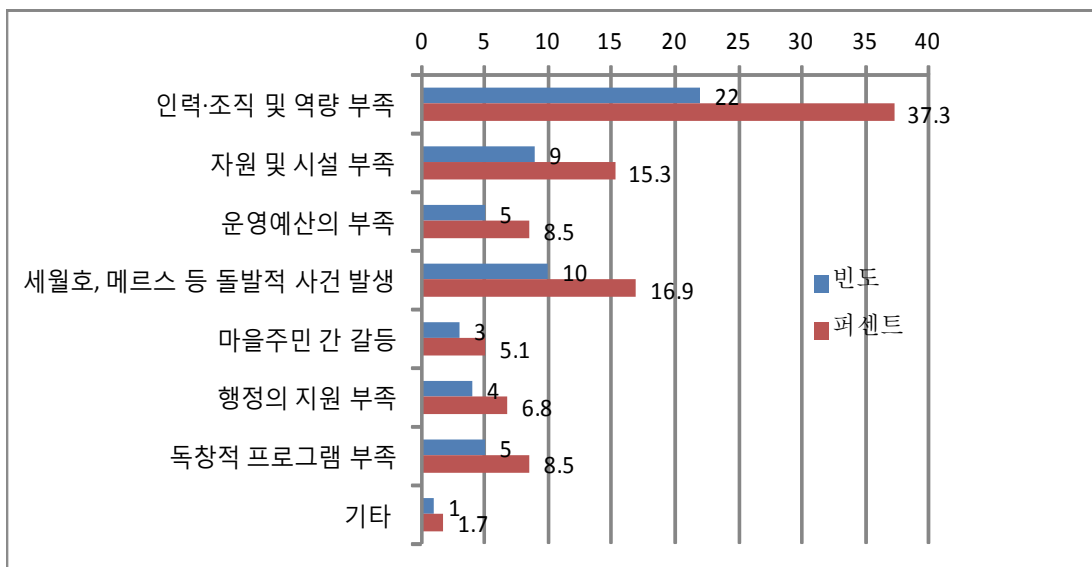
■ 조사 기간: 2015년 10-11월

■ 조사 방법: 현장 직접 설문 및 전자메일 송부 후 회신

### 2) 조사 결과

- 농어촌체험마을 담당자가 운영상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으로 나타남. 전체 59개 마을 응답자 가운데 22개 마을(37.3%)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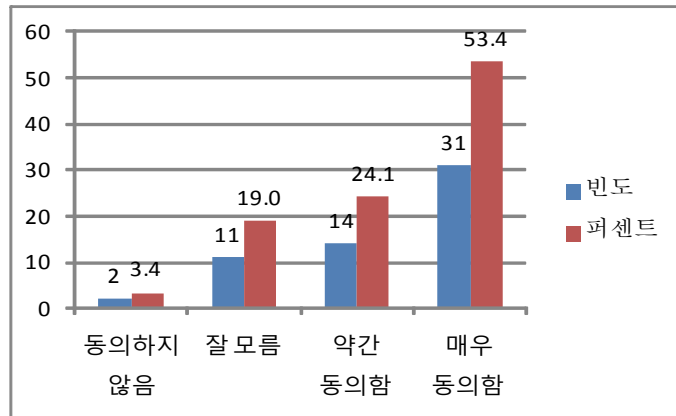
- 다음으로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적 사건 발생’이 10개 마을(16.9%)로 나타남.



[그림 3]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어려운 점

● 농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의 77.5%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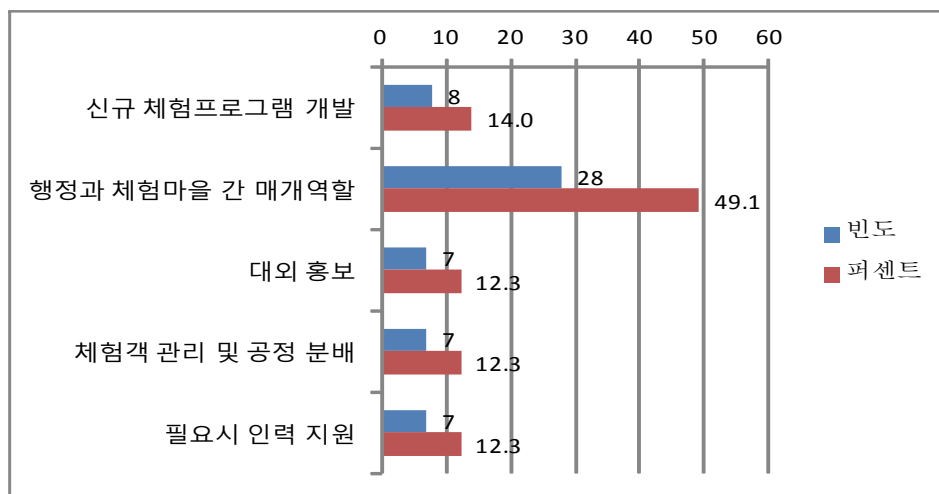
- 최근 ‘농촌나드리’와 같이 지역 내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우 동의함’이 31개 마을(53.4%), ‘약간 동의함’이 14개 마을(24.1%)로 나타남



[그림 4]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는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 역할’이라고 28개 마을(49.1%)이 응답해 절반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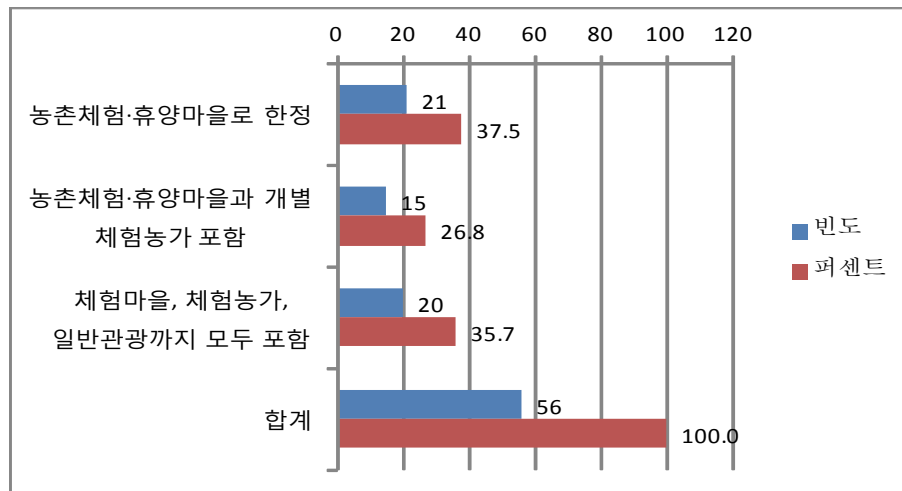
- 다음으로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8개 마을 14.0%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외 홍보’, ‘체험객 관리 및 공정 분배’, ‘필요시 인력 지원’ 등은 각각 7개 마을로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5]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

● 중간지원조직의 범위로는 마을단위, 마을+농가단위, 마을+농가+일반관광단위 등 세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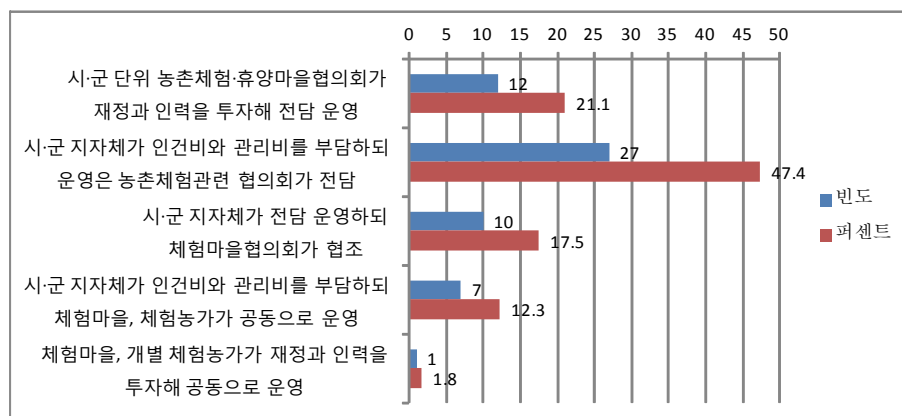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의 적당한 범위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과 ‘체험마을, 체험농가, 일반관광까지 모두 포함’이 각각 21개 마을, 20개 마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 체험농가 포함’은 15개 마을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세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 중간지원조직 참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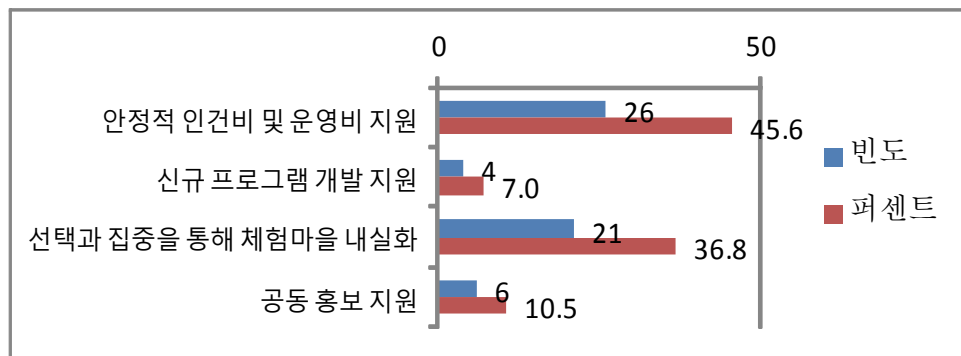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농촌체험관련 협의회가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27개 마을(47.4%)로 거의 절반 차지)

- ‘시·군 단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전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개 마을(21.1%)로 나타남



[그림 7] 중간지원조직의 적합한 운영 방식

-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향으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26개 마을(45.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마을 내실화’ 응답이 21개 마을(36.8%)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험마을의 내실화가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임을 알 수 있음



[그림 8]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향

-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농어촌체험에 관한 교육, 문화, 환경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홍성군, 청양군, 아산시 등 각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 도농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 특히 최근 들어 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 체험농장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충남도는 현재 충남도 전체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협력해 구축
  - 둘째,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이 필요함. 현재 충남도에는 11개의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 형태는 각각 다름.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할 경우 하나의 모델보다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모델 구축
  -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단순한 업무 지원 및 조정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체험해설사를 키우고 젊은 인력들이 지역 내로 들어와 지역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내지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

-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과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중간지원조직 자체도 행정과 회원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개발 혹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박 경 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6, kcpark@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5년도 전략과제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연구’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 참고 자료 ◆

- 구자인. 2015.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민간네트워크 구축 방안. 아산시 제1회 마을학교 5차 종합토론회 발표 자료.
- 박경철. 2013.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충남경제』 10월호: 18-25.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가을호: 31-39.
- 이차희·탁영란·김민서·손용훈. 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 정석호·정환영. 2012. “일본의 지역주민에 의한 도농교류: 일본 야마가타현 카네야마읍 타니구치 지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33-142.
- 정영일. 2015. “지금 왜 도·농협력인가?”, 『농정연구』 제55권 가을호: 11-17.
- 충청남도. 2013. 21-22. 「3농혁신대학『체험관광활성화』 과정」 자료.
- 충청남도. 2013. 8. 「3농혁신 추진 상황 점검 및 신규 시책 구상을 위한 도농교류사업단 TF팀 합동 회의」 자료.
- 충청남도. 2015. 10. 13-14 「3농혁신대학 도농교류활성화 과정」 자료.

##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 · 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 · 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 · 여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3	충남 폐염전 · 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4	2040년 충청남도 시 · 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5	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6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7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야	2016.06.30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